

朱熹 淫詩論에 대한 檢討

李 再 薰*

< 목 차 >

1. 서론
2. '鄭聲淫'의 의미에 대한 검토
3. 淫詩 자작설에 대한 검토
4. 淫詩관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5. 결론

1. 서 론

『詩經·國風』 160篇은 대부분이 각 지방의 민간가요로 그 가운데에는 각 지방의 인정·풍속·습관과 생활의 회노애락을 노래한 시편이 있을 뿐 아니라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시편 또한 적지 않다. 때문에 荀子는 「國風」의 내용에 好色하는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평하였다.¹⁾ 그러나 漢代에 출현한 「毛詩序」는 『詩經』을 정치교화의 產物로 보아 모든 시편을 時君과 國政을 찬미하거나 풍자한 것으로 천착부회하였다. 「毛詩序」의 설이 출현한 이후부터 「國風」의 남녀 애정시 역시 '感物道情, 吟詠情性'한 다른 「國風」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으로 해석되어 본연의 의미와 면모를 잃게 되었다.

宋代의 유학자인 朱熹는 『詩經』의 모든 시편들을 정치와 연관시켜 해석한 漢唐의 전통 詩經論에서 탈피, 「風」詩의 대부분이 조정의 작품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荀子·大略」: 「國風」之好色也.

즉 사대부 계층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서민들이 지은 이른바 ‘民俗歌謠之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민간의 토속적인 일과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閭巷風土·男女情思之詞’가 주종을 이룬다고 여겼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詩序』說을 폐기하고 詩 본문에 의거하여 詩를 해석하는 방법, 즉 ‘去『序』解詩’·‘以詩解詩’의 방법으로써 시인의 本意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變「風」中에 남녀간의 연애시 30篇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衛道的인 윤리도덕관에 의거 이를 비정상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읊은 淫(奔)詩라고 지칭하였다.²⁾

『詩經』에 淫詩가 있다는 朱熹의 견해는 禮教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충만하던 당시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대담한 주장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詩序』說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던 摯友 呂祖謙으로부터 의문을 제기당하였고,³⁾ 그와 절친하던 陳傅良 같은 道學者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와 변론하기를 회피하였을 정도였다.⁴⁾ 그리고 일반 학자들 역시 감히 이에 찬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그의 『詩集傳』의 說이 정설로 인정되던 元·明·清代에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淫詩論이 찬반 논의의 대상이 되어

2) 朱熹가 淫(奔)詩라고 여긴 30편은 다음과 같다. 「邶風·靜女」, 「鄘風·桑中」, 「衛風·氓」, 「衛風·有狐」, 「衛風·木瓜」, 「王風·采芣」, 「王風·大車」, 「王風·丘中有麻」, 「鄘風·將仲子」, 「鄘風·叔于田」, 「鄘風·遵大路」, 「鄘風·有女同車」, 「鄘風·山有扶蘇」, 「鄘風·摯兮」, 「鄘風·狡童」, 「鄘風·褰裳」, 「鄘風·丰」, 「鄘風·東門之墀」, 「鄘風·風雨」, 「鄘風·子衿」, 「鄘風·揚之水」, 「鄘風·野有蔓草」, 「鄘風·溱洧」, 「齊風·東方之日」, 「陳風·東門之枌」, 「陳風·東門之池」, 「陳風·東門之楊」, 「陳風·防有鶴巢」, 「陳風·日出」, 「陳風·澤陂」. 이상의 30편 가운데 「衛風·木瓜」, 「鄘風·叔于田」, 「鄘風·有女同車」 3편은 淫詩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여겼지만 분명하게 단정하지는 않았다.

3) 黃震, 『黃氏日抄』(京都: 中文出版社, 1978), 卷4, 「讀毛詩」, p.1: “其說頗驚俗, 雖東萊不能無疑焉.”

4) 葉紹翁, 『四朝聞見錄』(臺北: 商務印書館, 『叢書集成』本), 甲集, p.12: “考亭先生晚注『毛詩』, 盡去其『序』文, 以彤管爲淫奔之具, 以城闕爲偷期之所. 止齋得其說而病之, 謂以千七百年女史之彤管與三代之學校, 以爲淫奔之具與偷期之所, 私竊有所不安. 獨藏其說, 不與考亭先生辯. 考亭微知其然, 移書求其『詩』說. 止齋答以“公近與陸子靜鬪辯無極, 又與陳同甫爭論王霸矣, 某未嘗注『詩』, 所以說『詩』者, 不過與門人學子講義, 今皆毀之矣.” 蓋不欲佐陸·陳之辯也.”

詩經學史에 있어서 하나의 '未了公案'⁵⁾이 되었다.

朱熹의 淫詩論中 후세 학자들의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孔子 '鄭聲淫'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淫詩가 음탕한 자의 自作인지의 여부, 그리고 淫詩 판정의 타당성 여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항별로 후세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朱熹 淫詩論의 득실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2. '鄭聲淫'의 의미에 대한 검토

朱熹의 淫詩論은 『論語』와 『禮記·樂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孔子가 『論語』에서 '鄭聲淫'하기 때문에 '放鄭聲'해야 한다는 말과 『禮記·樂記』 "相間·濮上之音, 亡國之音也, …"라는 말에 의거, '聲' 또는 '音'이 음란하면 詩 또한 음란하므로 變「風」중 「鄭風」과 「邶風」·「鄘風」·「衛風」三衛詩에 음란한 詩가 많다고 여겼다. 이에 대한 朱熹의 주장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鄭·衛의 詩는 대부분이 淫奔詩이다. 鄭詩는 「將仲子」 같은 것 이하는 모두 천박하고 촌스러운 말로 단지 한때의 남녀가 淫奔하고 서로 유혹하는 말이며, 「桑中」詩 같은 것은 (「詩序」에서) "政事가 산란해지고 백성들이 游離하되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樂記」에서 "桑間·濮上의 음은 亡國의 음이다. 그 政事가 산란해지고 백성들이 游離하여 윗사람을 헐뜯고 사사로움을 행하였지만 제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鄭詩는 「緇衣」 이외에는 다 천박하고 촌스러우니 예를 들어 '쑥을 캔다'·'약쑥을 캔다'·'푸른 옷깃'의 류가 그것이다.⁶⁾ 때문에 孔子가 鄭聲을 몰아냈다.⁷⁾

5) 方回, 『桐江集』(臺北: 商務印書館, 『叢書集成』3編本, 1974), 卷7, p.16.

6) '采芣'와 '采艾'는 「王風·采芣」篇의 말인 것으로 보아 朱熹가 잘못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7) 程川 編, 『朱子五經語類』(臺灣: 商務印書館, 『四庫全書珍本』3集本, 1971), 卷52, p.10 : 鄭·衛

그런데 明의 楊慎은 ‘淫’이 ‘지나치다’는 뜻을 가진 어휘들을 예로 들어 孔子가 말한 ‘鄭聲淫’은 鄭나라의 樂聲이 일정한 한도를 넘었음을 뜻하는 것이지 음란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는 朱熹가 대부분의 「鄭風」詩篇을 淫詩로 판정한 것은 孔子의 말을 잘못 이해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論語』에 ‘鄭聲淫’이라고 하였는데, 淫이라는 것은 聲의 지나침이다. 물이 평원을 넘치는 것을 淫水라고 하고 비가 절도를 지나치는 것을 淫雨라고 하며 聲이 樂에 도를 지나치는 것을 淫聲이라고 하니, 같은 것이다. ‘鄭聲淫’이라는 것은 鄭나라의 樂으로 만든 聲이 도에 지나쳤다는 것으로 鄭詩가 다 음란하다는 것은 아니다. 후세에 그 뜻을 잃어 「鄭風」을 모두 음시로 해설하였으니 잘못이다.⁸⁾

그리고 明의 郝敬과 淸의 毛奇齡은 『尙書·堯典』篇의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에 의거하여 ‘聲’과 ‘詩’는 이질성을 띠고 있는 별개의 것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鄭聲이 음란하다고 하여 반드시 鄭詩가 다 음란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朱熹의 주장대로 鄭詩가 淫亂하다면 孔子가 마땅히 ‘放鄭詩’라고 하고 ‘放鄭聲’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朱子를 비판하였다.

대저 聲과 詩는 다르므로 ‘鄭聲淫’은 鄭詩가 다 음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虞書」에 “詩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늘인 것이다. 소리는 가락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음률이 聲이 되고 篇章이 詩가 되며, 聲은 音響에서 생기고 詩는 뜻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때문에 「古序」

詩多是淫奔之詩。鄭詩如「將仲子」以下，皆是鄙俚之言，只是一時男女淫奔相誘之語；如「桑中」詩（「詩序」）云：“政散民流而不可止”，故「樂記」云：“桑間。濮上之音，亡國之音也。其政散，其民流，誣上行私而不可止也。”鄭詩自「緇衣」之外，皆鄙俚，如“采芣”·“采艾”·“青衿”之類是也。故夫子放鄭聲。

8) 楊慎, 『丹鉛摘錄』(臺北: 商務印書館, 『四庫全書珍本』4集本, 1971), 卷5, p.5: 「論語」“鄭聲淫”, 淫者聲之過也。水溢於平曰淫水, 雨過於節曰淫雨, 聲溢於樂曰淫聲, 一也。“鄭聲淫”者, 鄭國作樂之聲過於淫, 非謂鄭詩皆淫也。後世失之, 解「鄭風」皆爲淫詩, 謬矣。

에서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나오면 詩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聲과 詩의 구분이다. 지금 「古序」에 의거하여 뜻 궁구하면 鄭·衛의 詩中에 어느 것이 淫詩가 되는가? 비록 「桑中」과 「溱洧」라 하더라도 뜻은 음란함을 풍자함에 있었으니 詩는 본래 音이 아니다.⁹⁾

鄭聲은 鄭詩가 아니다. … 詩와 聲은 정말로 지극히 같지 않다. 「虞書」에 “詩는 뜻을 말한 것이고 소리는 가락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聲과 詩는 분명히 두 가지 일이다. … 『朱子語類』에 이르러서 鄭과 衛가 같이 음란하다고 하고 孔子가 유독 鄭聲을 몰아낸 것은 衛詩 39篇中 음란한 것이 겨우 4분의 1인데 鄭詩 21篇中 음란한 것이 7분의 5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분명하게 두 나라의 詩篇으로써 음란함의 깊고 얕음을 비교하였은즉, 孔子가 마땅히 “鄭詩를 몰아내야 한다” 했어야지 “鄭聲을 몰아내야 한다”고 하였을 리 없다.¹⁰⁾

陳啓源은 이상의 두 설을 종합, ‘淫’이 상도를 벗어났음을 가리키고 ‘聲’과 ‘詩’가 이질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鄭나라의 음악이 ‘靡曼幼眇’하여 中正하고 和平한 상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孔子가 ‘鄭聲淫’이라고 말한 것인데, 朱熹가 ‘鄭聲’을 「鄭風」으로, ‘淫’을 남녀 淫慾의 淫으로 잘못 이해하여 「鄭風」 21篇을 淫奔한 자들의 작으로 판정했다고 비판하였다.

孔子는 鄭聲淫이라고 하였을 뿐이지 언제 鄭詩淫이라고 하였는가? 聲이라는 것은 樂音이지 詩詞가 아니며, 淫이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男女의 淫欲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淫에 대하여 말한 것이 많으니 별에 대해서 淫이라고 하였고 비에 대해서 淫이라고 하였으며 물에 대

9) 郝敬, 『毛詩原解』(臺北: 藝文印書館, 『湖北叢書』本, 1967), 「序」, p.3: 夫聲與詩異, “鄭聲淫”非鄭詩盡淫也. 「虞書」曰: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音律爲聲, 篇章爲詩; 聲生於響, 詩成於志. 故「古序」曰: “在心爲志, 發言爲詩.” 此聲與詩之辨也. 今據「古序」以釋志, 鄭·衛之詩, 其何者爲淫詩與? 雖「桑中」·「溱洧」, 志在刺淫, 而詩本非音也.

10) 毛奇齡, 『白鷺洲主客說詩』(臺北: 復興書局, 『皇清經解續編』本, 1972), 卷21, p.1: 鄭聲非鄭詩也. … 若詩與聲, 則眞不同之極者. 「虞書」“詩言志, 聲依永”, 聲與詩, 分明兩事. … 及『朱子語類』且謂鄭·衛同淫, 而夫子獨放鄭聲者, 衛詩三十九, 淫纔四之一; 鄭詩二十一, 淫不啻七之五, 擊鑿以二國詩篇較淫深淺, 則夫子當云“放鄭詩”, 不當云“放鄭聲”矣.

해서 淫이라고 하였고 형벌에 대해서 淫이라 하였으며 遊覽과 사냥에 대해서 淫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그 상도를 지나친 것을 말하였을 따름이다. 樂의 5音12律과 長短高下는 모두 절도가 있다. 鄭聲은 靡曼幼眇하여 中正和平한 운치가 없어 듣는 자로 하여금 욕념을 이끌어나고 슬픔을 보태게 하여 빠져서 돌아갈 것을 잊게 하기 때문에 淫이라고 한 것이다. 朱子는 鄭聲을 「鄭風」이라고 여기고 지나치다는 뜻의 淫을 남녀 淫欲의 淫으로 여겨 마침내 「鄭風」 21篇을 모두 淫奔한 자들이 지은 것이라고 지목하였다.¹¹⁾

현대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陳啓源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고대에 있어서 詩와 樂의 관계와 『禮記·樂記』에 기록된 子夏의 언급을 살펴보면 ‘聲’과 ‘詩’가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鄭聲’이 鄭詩, 즉 「鄭風」이 아니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 朱熹의 견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墨子·公孟』篇에 “儒者들은 『詩』三百을 吟誦하고 『詩』三百을 현악기로 연주하며 『詩』三百을 노래하고 『詩』三百에 맞추어 춤을 춘다”¹²⁾라고 하였고, 또 『春秋左傳』襄公 29년에 吳의 季札이 魯나라를 방문하여 周樂을 보기를 청하여 魯 襄公이 그를 위해 樂工에게 「周南」·「召南」 및 「邶風」을 비롯한 諸「國風」, 그리고 「小雅」·「大雅」 및 「頌」을 노래하게 한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先秦시대에 『詩經』이 入樂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聲’이나 ‘音’ 또는 ‘樂’은 바로 入樂되어 노래로 불릴 수 있는 詩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尚書·堯典』篇에서 “詩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늘인 것이다. 소리는 가락을 따라야 되고 音律은 소리와 조화되어

11) 陳啓源, 『毛詩稽古編』(臺北: 復興書局, 『皇清經解』本, 1972), 卷64, p.10: 夫子言鄭聲淫耳, 曷嘗言鄭詩淫乎? 聲者, 樂音也, 非詩詞也; 淫者, 過也, 非專指男女之欲也. 古之言淫多矣, 於星言淫, 於雨言淫, 於水言淫. 於刑言淫, 於游觀田獵言淫, 皆言過其常度耳. 樂之五音十二律. 長短高下, 皆有節焉. 鄭聲靡曼幼眇, 無中正和平之致, 使聞之者導欲增悲, 沈溺而忘返, 故曰淫也. 朱子以鄭聲爲「鄭風」, 以淫過之淫爲男女淫欲之淫, 遂舉「鄭風」二十一篇盡目爲淫奔者所作.

12) 儒者誦「詩」三百, 弦「詩」三百, 歌「詩」三百, 舞「詩」三百.

야 한다”¹³⁾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先秦시대의 사람들이 詩와 聲·音·樂이 일치한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후세 詩樂合一論의 근간이 된다. 즉 『禮記·樂記』에서 “詩는 그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그 소리를 길게 늘인 것이며 춤은 그 자태를 움직인 것이다. 세 가지가 마음에 근본을 둔 다음에 樂器가 따른다. 이러한 까닭에 情은 깊되 드러난 것은 분명하고 氣가 성하여 감화시키는 바가 오묘하다. 和順함이 속에 싸여 光華가 밖으로 발하므로 오로지 樂만은 거짓으로 할 수 없다”¹⁴⁾라고 하여 ‘詩’·‘歌’·‘舞’가 모두 ‘心’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三者 및 ‘聲’·‘樂’이 모두 내용상의 동질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呂氏春秋·音初』篇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풍속을 알며 그 풍속을 살펴 그 뜻을 안다”¹⁵⁾라고 하여 이른바 ‘聲’과 ‘風’ 및 ‘志’의 관계 역시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요컨대 이는 한 마디로 ‘詩樂合一’ 또는 ‘聲詩合一’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학자 錢鍾書 역시 詩와 聲이 내용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詩淫’과 ‘聲淫’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은 마치 무사가 화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아가거나 신부가 갑옷을 입고 부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사리에 어긋난다 하였다.

대체로 盛大雄傑한 말은 華美하고 난잡한 聲으로써 ‘吟詠’하여 桑間·濮上의 음으로써 지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 詩는 반드시 情詞가 佚蕩하여야 서로 부합하여 더욱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데도 합치면 둘 다 손상된다. 예를 들어 무사가 전장에 나아가면서 분을 바르고 신부가 부엌에 들어가면서 갑옷을 걸쳐 사물이 그 마땅한 바에 어긋나고 쓰임이 그 기물에 어긋나는 것과 같다.¹⁶⁾

13)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14) 詩言其志也, 歌詠其聲也, 舞動其容也. 三者本於心, 然後樂氣從之. 是故情深而文明, 氣盛而化神. 和順積中而樂華發外, 唯樂不可以爲僞.

15) 聞其聲而知其風, 察其風而知其志.

그렇다면 詩가 음란하면 聲이 반드시 음탕하고 聲이 음탕하면 詩가 반드시 음란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鄭聲淫'의 '淫'이 일정한 한도를 지나친 것을 가리킨다는 견해는 『禮記·樂記』에 기록된 子夏와 魏文侯의 문답으로써 부정할 수 있다.

文侯가 묻기를: “감히 여쭙겠는데 溺音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子夏가 대답하기를: “鄭音은 난잡함을 좋아하여 사람의 뜻을 음탕하게 하고 宋音은 섬세하고 유약하여 사람의 뜻을 깊이 빠지게 하며 衛音은急促하여 사람의 뜻을 산란하게 하고 齊音은 오만하고 편벽되어 사람의 뜻을 교만하게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色에 음란하고 德에 해가 되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¹⁷⁾

여기서 子夏가 鄭·衛·宋·齊의 音이 '淫於色'하다고 하였고 특히 '鄭音', 즉 鄭聲에 대해서 사람의 뜻을 음탕하게 한다고 평하였는데, 이것은 子夏가 鄭聲 곡조의 특징에 주의하여 그 음탕한 본질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子夏의 이와 같은 판단은 곡조의 여러 특징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이해에 의거한 것이다. 孔子가 “가히 더불어 『詩』를 말할 수 있다(可與言詩)”(『論語·八佾』篇)고 칭찬할 정도로 詩에 정통한 子夏였던 점으로 보아 '淫'에 대한 그의 정의 또는 판단기준이 바로 孔子의 정의 또는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孔子가 말한 '鄭聲淫'이 바로 '鄭聲이 음탕하다'는 의미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요컨대 『詩經』을 논함에 있어 孔子는 그 '聲'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鄭聲淫'이라고 한 것이고, 朱熹는 그 '詩' 즉 文辭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鄭詩淫'이라고 한 것이다. 사실상 양자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16) 錢鍾書, 『管錐編』第一冊(北京: 中華書局, 1979), p.60: 夫洋洋雄傑之詞不宜“詠”以靡靡滌濫之聲, 而度以柔·澁之音者, 其詩必情詞佚蕩, 方相得而益彰. 不然, 合之兩傷. 如武夫上陣而施粉黛, 新婦入廚而披甲冑, 物乖攸宜, 用違其器.

17) 文侯曰: “敢問溺音何從出也?” 子夏對曰: “鄭音好濫淫志, 宋音燕女溺志, 衛音趨數煩志, 齊音放辟喬志. 此四者皆淫於色而害於德, 是以祭祀弗用也.”

3. 淫詩 자작설에 대한 검토

朱熹는 다음과 같이 變「風」詩中에 남녀간의 음란한 애정행각을 읊은 民間閭巷 소인배들의 자작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變「風」等과 같은 詩에는 좋지 않은 것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좋은 詩들은 大夫의 作이며 그 좋지 않은 詩들은 단지 閭巷小人の 作이다. 先輩들은 대부분 (思無邪가) 詩를 짓는 생각이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그 중에는 淫奔하는 좋지 않은 詩가 많이 있어서 역시 사악한 생각에 없는 것은 아니다.¹⁸⁾

朱熹의 주장에 의하면, 民間閭巷의 소인배들은 신분이 미천하고 도덕적 소양이 결여되어 시가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노래함에 있어 소양이 깊은 사대부들처럼 美刺를 염두에 두어 溫柔敦厚하고 완곡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느낀 바를 아무 거리낌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變「風」中에 民間閭巷의 敗德한 소인배들이 예의의 규범에서 일탈한 자신들의 애정행각을 아무 부끄럼없이 노래한 詩, 즉 淫詩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지 ‘思無邪’라는 한 마디 말은 좋은 것이지만 『詩經』 모두가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¹⁹⁾ 남녀간의 사랑을 읊은 시편들은 음란한 자의 자작이지, 시인이 음란한 자를 풍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²⁰⁾ 朱熹는 자신의 淫詩 자작설에 의거하여 남녀간의 애정을 읊은 시편중 一人稱代詞 ‘我’자 또는 ‘予’자가 출현하는 것

18) 黎靖德 類編, 『朱子語類』(臺北: 正中書局, 1962), 卷23, p.12: 如變「風」等詩, 極有不好者… 大段好詩者, 大夫作; 那一等不好詩, 只是閭巷小人作. 前輩多說是作詩之思, 不是如此其間多有淫奔不好詩, 不成也無邪思.

19) 前掲書, 卷80, p.1: 只是‘思無邪’一句好, 不是一部‘詩’. 皆思無邪.

20) 前掲書, 卷23, p.5: 如‘桑中’, ‘溱洧’之類, 皆是淫奔之人所作, 非詩人作此以譏刺其人也.

은 대부분 淫詩로 판정하였다.²¹⁾ 그러나 이와 같은 朱熹의 주장과 판정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 즉 朱熹가 판정한 이른바 淫詩들이 모두 음란한 자의 자작이고 음란한 자에 대한 제삼자의 풍자시가 아니라는 데²²⁾ 의문이 발생한다.

그래서 宋의 嚴粲은 「陳風·東門之枌」篇의 文辭를 완미하여 보니 다른 사람이 책망하는 詩가 분명하다고 하여 朱熹 『詩集傳』의 “이것은 남자가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그 일을 읊어서 서로 즐긴 것이다”²³⁾라는 설을 반대하고 「詩序」의 설을 옹호하였다.

어떤 사람이 … 이 詩 또한 男女가 모여서 그 일을 읊어서 서로 즐긴 것이라고 하였다. … 이 詩의 ‘삼베길쌈은 아니하고’를 玩味해 보면 바로 책망하는 말이지 서로 즐기는 말이 아니다. 「首序」는 다 제거할 수는 없다.²⁴⁾

嚴粲의 견해에 의하면 「東門之枌」 第2章中の ‘不績其麻’句는 여자가 길쌈을 하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서술하여 책망한 것이므로 이 詩가 「詩序」의 「首序」 “어지러움을 질시하였다(疾亂也)”라는 해설이 옳고 朱熹의 음시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淸의 胡承珙 역시 嚴粲의 주장에 동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子仲氏네 따님’을 玩味해 보면 분명히 타인의 말이며 ‘삼베길쌈은 아니하고’는 단지 그녀가 일을 廢棄한 것을 諷刺한 것이지, 男女가 詩를 읊어 서로 즐

21) 淸의 管世銘은 “「溱洧」之旨，與「桑中」大約相同，以其言尤明易見。‘期我’·‘邀我’，若爲其人代言，『集傳』因以爲淫者自言，以詩中有‘我’字也。”(挾經心室主人編，『淸儒詩經彙解』，臺北：鼎文書局，1972，p.153 재인용)，日本의 竹添光鴻은 “朱『傳』以「東門之枌」末章‘視爾’·‘遺我’，似兩相親愛之語，故以爲男女自賦其事。”(竹添光鴻，『毛詩會箋』，臺北：大通書局，1975，p.750)라고 하여 朱熹가 시편의 내용과 人稱代詞에 의거하여 음시를 판정하였음을 밝혔다.

22) 『朱子語類』，卷80，p.1：如「桑中」·「溱洧」之類，皆是淫奔之人所作，非是人作此以譏刺其人也。

23) 朱熹，『詩集傳』(臺北：學生書局，1970)，卷7，p.2：此男女聚會歌舞，而賦其事以相樂也。

24) 嚴粲，『詩緝』(臺北：廣文書局，1972)，卷13，p.3：或謂…此詩亦爲男女聚會，而賦其事以相樂…味此詩“不績其麻”，正是詆責之辭，非相樂之辭。「首序」未易盡去也。

기며 스스로 삼베길쌈을 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다.²⁵⁾

嚴粲과 胡承珙의 주장이 옳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東門之枌」篇을 보도록 하겠다.

東門之枌, 宛丘之栩!
子仲之子, 婆娑其下.
穀旦于差, 南方之原.
不續其麻, 市也婆娑.
穀旦于逝, 越以罷邁.
視爾如荻, 貽我握椒.

동문에는 느릅나무 완구에는 도토리나무.
子仲氏네 따님이 그 밑에서 춤을 추네.(第1章)
좋은 날을 가리어 남쪽 들에 모였는데,
삼베길쌈은 아니하고 날렵하게 춤을 추네.(第2章)
좋은 날에 여럿이 함께 가다가,
그대를 보니 금규화 같은데 나에게 한줌의 산초
를 주네.(第3章)

이 詩를 보면 作者인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러나가 子仲氏의 딸과 어울려 즐긴 일을 노래한 것이 분명하다. 嚴粲과 胡承珙의 주장에 무리가 있고 朱熹의 해설이 詩의 本義에 가깝되 역시 완전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朱熹가 판정한 淫詩 30篇중 많은 학자들이 음탕한 자의 自作이 아닌 시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지적을 받은 詩는 朱熹가 呂祖謙과 '雅鄭'의 문제를 놓고 논전을 벌일 때 대표적인 淫詩로 지목하였던 「鄭風·溱洧」篇이다. 明의 何楷는 朱熹가 『韓詩』 薛君 『章句』에²⁶⁾ 의거하여 “鄭나라 習俗에 3月 上巳日(溱水와 洧水의) 물가에서 난초를 캐어 不祥을 祓除하였다”²⁷⁾라고 해설한 것에는 동의하되 淫奔한 者가 스스로 서술한 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詩를 지은

25) 胡承珙, 『毛詩後箋』(臺北: 復興書局, 『皇清經解續編』本, 1972), 卷12, p5: 玩“子仲之子”, 明是他人之言; “不續其麻”, 直是刺其廢業, 未有男女賦詩相樂, 而自言不續其麻也.

26) 王先謙, 『詩三家義集疏』(北京: 中華書局, 1987), 卷5, p.371: 韓說曰: “溱與洧, 說人也. 鄭國之俗, 三月上巳之日於兩水上, 招魂續魄, 拂除不祥, 故詩人願與所說者俱往觀也.”

27) 『詩集傳』, 卷4, p.28: 鄭國之俗, 三月上巳之辰, 采蘭水上, 以祓除不祥.

자가 남녀간의 음란한 일을 서술하여 풍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朱子가 薛君의 「注」에 의거하여 이 詩를 해설하였는데 옳다. 그러나 “淫奔한 者가 스스로 서술한 말이다”라고 일컬은 것은 또한 그렇지 않다. 篇中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서술한 體를 보면 다만 詩를 지은 者가 그 일을 드러내어 풍자한 것일 뿐이다.²⁸⁾

淸의 顧廣譽 역시 何楷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詩의 “여자가 ‘가 볼까요?’라고 하니 남자가 ‘벌써 갔다 왔는걸”은 분명히 옮겨 진술한 말이며, “남자와 여자는 농짓거리를 하며 장난친다”는 빈축의 道가 은연히 비춘다.²⁹⁾

「溱洧」篇은 詩篇 가운데 ‘士曰’과 ‘女曰’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랑하는 남녀가 강가에 나와 즐기는 모습을 제삼자가 보고 노래한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朱熹의 해설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詩가 풍자시인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何楷나 顧廣譽의 설 역시 완전하지 못하다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錢鍾書는 張爾岐가 『蒿菴閒話』에서 “溱水와 洧水” 또한 옆의 사람이 보고들은 바를 진술하여 퍼서 문장을 이룬 것이다. 해설하는 者들이 『詩集傳』의 ‘淫奔한 者가 스스로 서술한’ 말이라는 것에 구애되는데 ‘女曰’과 ‘士曰’ 등의 글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³⁰⁾라고 하여 「詩序」의 美刺說을 배제함과 동시에 朱熹의 詩人自

28) 何楷, 『詩經世本古義』(臺北: 商務印書館, 『四庫全書珍本』, 4集本, 1971), 卷19上, p.15: 朱子據薛君「注」以解此詩, 是矣. 然謂“淫奔者自敘之詞”, 則亦未然. 觀篇中具敘事體, 乃直是作詩者暴其事以刺爾.

29) 『清儒詩經彙解』, p.253에서 재인용: 至此詩“女曰‘觀乎?’ 士曰‘既且’”, 顯然轉述之辭; “維士與女, 伊其相謔”, 則隱然頌嘆之道矣.

30) 張爾岐, 『蒿菴閒話』: “溱與洧”亦旁人述所聞所見, 演而成章. 說者泥『傳』“淫奔者自敘”之詞, 不知“女曰”·“士曰”等字如何安頓?(『管錐編』, 第一冊, p.106에서 재인용)

作說을 부정한 말에 대하여 ‘明通之言’이라고 평하였다.³¹⁾

시가창작의 일반적 관례에 있어서 詩篇中에 一人稱代詞 ‘我’字 또는 ‘予’字 등의 시인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詩가 반드시 다 시인의 자작이라 할 수는 없다. 그 중에는 제삼자인 시인이 詩篇中의 인물의 입장에 서서 자작의 형식으로써 마치 자기의 일을 진술하는 것인양 代作한 것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예는 후대의 詩詞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즉 詩의 경우를 보면, 晉 陸雲 「爲盧彥先贈婦」 4首中 第1·3首는 盧彥先을 대신하여 盧彥先의 妻에게 보내는 詩이고 第2·4首는 妻를 대신하여 남편에게 보내는 詩이다. 그리고 唐 劉禹錫이 武元衡을 애도하여 지은 「代靖安佳人怨」 역시 자작의 형식을 빌어서 지은 代作이다. 詞의 경우는 이러한 자작의 형식을 거의 관용적으로 써서 남자가 여인의 말투로 지은 작품이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唐 昭宗의 「菩薩蠻」의 結句 ‘迎奴歸故宮’은 사실 ‘宮人思歸之詞’이고 李後主의 ‘奴爲出來難’ 역시 남을 대신하여 ‘奴’라고 칭한 것이다. 심지어는 孫夫人이 「燭影搖紅」詞를 지어 남자의 相思之情을 읊은 경우도 있다.³²⁾ 이렇게 볼 때, 詩篇中에 一人稱代詞 ‘我’字 또는 ‘予’字가 있는 詩中에는 자작이 있을 뿐 아니라 제삼자의 代作도 있다고 여긴 胡承珙의 견해 역시 일리가 있다 할 수 있다.

무릇 『詩』中的 ‘나’에는 그 사람 자신인 것이 있고 사람을 대신하여 ‘나’라고 한 것이 있으며 한 篇中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출현하여도 무방하다.³³⁾

元의 許謙은 朱熹의 詩經論을 독신한 학자였지만 淫詩論의 자작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淫詩의 文辭가 지극히 곡진하고 원숙한 것으로 보아, 詞章에 능하고 민간풍속에 밝은 문인의

31) 『管錐編』 第一冊, p.105 참조.

32) 前掲書 第一冊, p.87 참조.

33) 『毛詩後箋』, 卷1, p.22 : 凡『詩』中“我”者, 有其人自我者, 有代人言我者, 一篇之中, 不妨並見.

代作이 그 중에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였다.

방탕하고 음란한 말로 친압하고 淫邪한 상황을 아주 잘 말한 것은 반드시 그가 자작한 것은 아니고 또한 당시에 詞章에 능하고 풍속을 깊이 아는 자가 지은 것이다.³⁴⁾

요컨대 一人稱代詞 ‘我’字 또는 ‘予’字를 가지고 있는 淫詩는 기본적으로는 朱熹의 주장대로 음탕한 자의 자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삼자가 대작한 작품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시를 지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느 것이 자작이고 어느 것이 대작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一人稱代詞가 포함된 淫詩를 제삼자의 대작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음탕한 자의 자작이라고 간주하는 편이 비교적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4. 淫詩 판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朱熹가 淫詩라고 판정한 30篇中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판정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실제로 淫詩라고 볼 수 없는 시편이 몇 편 있다. 그리고 시인의 情志를 남녀의 애정에 기탁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편 역시 일부 있다.

우선 朱熹가 淫詩로 잘못 판정한 것이 분명한 시편으로, 「衛風」의 「氓」과 「有狐」, 「鄭風」의 「風雨」와 「揚之水」 등의 4篇이 있다.

34) 許謙, 『詩集傳名物鈔』(臺北: 漢京文化事業公司, 『通志堂經解』本, 1979), 卷3, p.18: 放淫之辭, 深能道狎邪之情況者, 未必皆其所自作, 亦當時善爲詞章而深知風俗者爲之也.

「氓」篇에 대하여 朱熹는 『詩集傳』에서 “음탕한 부인이 사내에게 버림을 받고 스스로 그 일을 서술하여 그 뉘우치고 恨하는 뜻을 말한 것이다”³⁵⁾라고 해설하였는데, 이러한 해설을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 이 시의 주인공이 朱熹의 말대로 ‘음탕한 부인’이라면 그 부인은 정식으로 ‘父母之命’을 받고 ‘媒妁之言’을 통하는 절차를 거쳐 혼인을 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野合’한 여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시 전편을 살펴보면, 형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夫失父母한 것 같으며, 詩篇中에 “내가 기일을 미루었던 게 아니라 그대가 변변한 중매인이 없어서 이지(匪我愆期, 子無良媒)”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시편의 주인공인 ‘음탕한 부인’이 혼인의 절차를 아주 중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또 남자 역시 ‘음탕한 부인’이 “그대는 거북점·시초점을 쳤는데 점괘에 나쁘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대의 수레를 몰고 와 나를 재물과 함께 데려 갔었지(爾卜爾筮, 體無咎言. 以爾車來, 以我賄遷)”라고 서술한 바와 같이 六禮를 갖추어 여자를 맞이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의 주인공은 淫奔한 여자일 리가 없다. 더군다나 第5章에서 “3년을 부인으로서 방에서 철새없이 수고하였고,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자서 아침도 몰랐었지(三歲爲婦, 靡室勞矣. 夙興夜寐, 未有朝矣)”라고 하였으니 이처럼 근면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인을 음탕한 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이 편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의 설움을 노래한 시이지 결코 淫詩가 아니다.

「有狐」篇에 대하여 朱熹는 『詩集傳』에서 과부가 홀아비를 보고 그에게 시집가고 싶어하는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하여³⁶⁾ 淫詩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이 과연 과부가 홀아비에게 시집가고 싶은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과부가 홀아비에게 재가하는 것은, 『儀禮·喪服』篇에서 “아버지가 죽어 계모가

35) 『詩集傳』, 卷3, p.20 : 此淫婦爲人所棄, 而自叙其事以道其悔恨之意也.

36) 前掲書, 卷3, p.27: 國亂民散, 喪其妃耦, 有寡婦見鰥夫而欲嫁之, 故託言有狐獨行, 憂其無裳也.

시집을 가면 …(父卒, 繼母嫁, …)”이라고 하고 『周禮·地官』篇에서 “媒氏は… 남편과 아내가 없는 남녀들을, 즉 과부와 홀아비들을³⁷⁾ 살펴서 만나도록 하였다(媒氏… 司男女之無夫家者而會之)”라고 한 것처럼, 先秦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 이는 朱熹가 程子の ‘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라는 진부한 도덕관념의 영향을 받아 淫詩로 판정한 것이다.

『風雨』篇에 대하여 朱熹는 文辭가 경박하고 무람없다고 여기고³⁸⁾ 『詩集傳』에서 淫奔한 여자가 남자와 밀회하는 淫詩라고 해설하였다.³⁹⁾ 그러나 이 詩의 文辭를 보면 경박하고 무람없는 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毛奇齡은 이 시의 ‘風雨淒淒’句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의 가장 점잖은 표현이고 또 ‘既見君子’句가 淫詩가 아닌 『周南·汝墳』篇에도 출현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 시는 결코 淫詩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비바람 쌀쌀하게 몰아치는데’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중의 가장 雅正한 것이고, 二‘南’에 원래 ‘우리 님을 만났으니’의 일례가 있다. 이것들은 三百篇의 본문에 본디부터 있는 것인데, 하나는 后妃의 德이 되고 하나는 淫奔이 되니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비바람이 쌀쌀하게 몰아치는데(답의 울음소리 꼬끼오하고 들려오네)’ 여덟 글자가 淫蕩한 말이란 말인가?⁴⁰⁾

그래서 宋·元·明·淸의 여러 학자들은 淫詩에서 남자를 ‘君子’라고 칭한 경우가 없다고 하여 朱熹의 설에 동의하지 않았다.⁴¹⁾ 朱熹는 『詩集

37) 『周禮注疏』(臺北: 藝文印書館, 『十三經注疏』本, 1972), 卷14, p.16, 鄭玄注: 無夫家, 謂男女歸寡者.

38) 朱熹, 『詩序辨說』(臺北: 藝文印書館, 『學津討源』本, 1965), p.20: 考詩之詞, 輕佻狎昵.

39) 『詩集傳』, 卷4, p.25: 淫奔之女言當此之時, 見其所期之人而心悅也.

40) 『白鷺洲主客說詩』, p.4: 例如“風雨淒淒”, 懷人之最雅者; 二“南”原有“既見君子”一例·此在三百本文所自有者, 而一爲后妃之德, 一爲淫奔, 何以爲說? 豈“風雨淒淒[雞鳴啾啾]”八字爲淫詞耶?

41) 王鴻緒, 『欽定詩經傳說彙纂』(臺北: 維新書局, 1978), 卷5, pp.46-47: 「序」: “「風雨」(筆者注: 原文에는「雞鳴」으로 잘못 되어 있음), 思君子也. 亂世則君子不改其度焉.”……所以自兩漢六朝及唐·宋諸儒, 皆傳其說, 守而不易·獨至朱子而直斷爲詩詞輕佻狎昵, 非思賢之意, 風雨晦冥爲淫奔之時. 而南宋·元·明諸儒率不宗其說, 且辨之曰: “淫詩未見有稱其人爲君子者.” 蓋風

傳』에서 「草蟲」·「殷其雷」·「雄雉」·「君子于役」·「君子陽陽」·「小戎」 등 남녀간의 일을 읊은 시편중의 '君子'에 대해서는 부인이 그 남편을 칭한 것으로 해설하고 여타 시편중의 '君子'에 대해서는 在位者에 대한 존칭으로 해설하고 있으면서, 유독 이 「風雨」篇의 '君子'에 대해서만 음탕한 남자로 지칭함으로써 그 해설의 일관성을 잃었다. 이는 朱熹가 '鄭聲淫'이라는 선입견에 구애된 데서 연유한 것이다.

「揚之水」篇에 대하여 朱熹는 『詩序辨說』에서 남녀가 굳게 약속하는 말이라고 하여⁴²⁾ 淫詩로 판정하였다. 이는 아마 그가 이 시가 내용에 있어서 「陳風·防有鵲巢」篇과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⁴³⁾ 그러나 그의 三傳弟子이면서 누구보다도 淫詩를 질시하여 『詩經』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한 王柏은 남에게 이간질 당한 형제가 서로 경계하고 다짐하는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朱熹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다.

「揚之水」에 대해서도 또한 淫奔이라고 일컬었는데, 만약 "그 형제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서 형제가 서로 경계하는 말이다"라고 하면 평이하고 분명하여 여운이 있지 않겠는가?⁴⁴⁾

그리고 胡承珙은 朱熹가 이 시를 음탕한 자들이 서로 만나는 말이라고 해설을 하면서 "형제는 많지 않고 오직 나와 너뿐(終鮮兄弟, 維予與女)" 2句가 전체 문맥상 통하지 않자 『詩集傳』에서 억지로 '兄弟'와 '予'·'女'를 "형제는 인척의 지칭으로 『禮』의 이른바 '인척으로 맺을 수가 없다'가

雨雜至而如晦, 喻世之昏亂; 雞鳴在暗而思曙, 喻君子居亂而思治. 君子不改其度, 則其道可挽, 故見之而心悅, 如疾之去其體焉. 以此觀詩, 古說亦可通也夫!

42) 『詩序辨說』, p.20: 此男女要結之詞.

43) 이것은 朱熹의 門人 輔廣이 『童子問』(臺北: 商務印書館, 『四庫全書珍本』, 4集本, 1972), 卷3, p.12에서 「陳風·防有鵲巢」篇에 대하여 "遊蕩歌舞, 陳之俗也. 其流爲淫邪者宜矣. 故「陳風」之末, 大抵皆淫亂之詩. 此詩正與「鄭風·揚之水」意相似."라고 평한 것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44) 『詩疑』(臺北: 漢京文化事業公司, 『通志堂經解』本, 1979), 卷1, p.4: 至於「揚之水」, 亦謂之淫奔. 若曰"人有間其兄弟, 而兄弟相戒之詞", 豈不平易明白而有餘味?

그것이다. 予와 女는 남녀가 서로 일컬은 것이다”⁴⁵⁾라고 건강부회하였다고 여겼다. 그는 만약 朱熹의 주석을 따른다면 章首 “잔잔한 물결은 사라 다발도 떠내려보내지 못하네(揚之水, 不流東楚)” 2句에 대한 해설이 문맥상 잘 통하지 않음을 지적한 何楷의 말을 인용하여, 형제는 많고 적음으로써 논할 수 있지만 부부를 많고 적음으로써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따라서 이 시를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淫詩로 보아서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何楷의 『詩經世本古義』에 “朱熹『詩集傳』은 바꾸어서 음탕한 자들이 서로 만나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兄弟’에 대해서 통하기가 어렵자 ‘형제는 인척의 지칭으로 『禮』의 이른바 인척으로 맺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 그러나 章首의 ‘잔잔한 물결은’ 2句는 웅당 어떻게 해설하여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형제를 인척으로 여긴다면 章首의 2句가 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本句 또한 어울리지 않는다. 형제는 많고 적음으로써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부부이면서도 많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⁴⁶⁾

胡承珙의 비판은 朱熹의 오류를 매우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만약 ‘兄弟’를 『禮記·曾子問』에 부회하여 인척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왜곡해설한다면 『詩經』 三百篇을 다 남녀간의 일을 노래한 시라고 해설할 수도 있는 일이다. 때문에 “『揚之水』에 이르러서는 淫詞라고 지목하려고 하였지만 시의 文義가 통하기 어려우니까 형제를 인척이라고 訓을 하였는데 이것은 더욱 우스꽝스럽다. 어찌 시를 지은 자가 시집장가 가지 않고 오로지 野合만을 일삼는 자이겠는가?”⁴⁷⁾라고 한 陳啓源의 비판이 지나친

45) 『詩集傳』, 卷4, p.26: 兄弟, 婚姻之稱, 『禮』所謂“不得嗣爲兄弟”是也。予·女, 男女自相謂也。

46) 『毛詩後箋』, 卷7, p.49: 何氏‘古義’曰“……朱‘傳’改爲淫者相會之辭, 而于‘兄弟’難通, 則曰: ‘兄弟, 婚姻之稱, 『禮』所謂不得嗣爲兄弟是也。’ … 然章首‘揚之水’二句, 當作何解?” 承珙案: 以兄弟爲婚姻, 非獨章首二句難通, 卽本句亦自不協。兄弟可以多寡言, 若夫婦而曰終鮮, 此何言乎?

47) 『毛詩稽古編』, 卷64, p.21: 至‘揚之水’, 欲指爲淫詞, 而詩之文義難通也, 則訓兄弟爲婚姻, 此尤可。豈作詩者, 乃不昏不嫁, 專事野合者哉?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리고 「衛風·木瓜」篇은 남녀간의 증답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친구간의 증답을 노래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시이다. 이러한 까닭에 스승의 설을 독신하고 변호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던 輔廣조차도 朱熹가 淫詩라고 판정한 것에⁴⁸⁾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대의 의사를 완곡하게 비추었다.

어떤 배우는 자가 선생께 청하여 “제가 「木瓜」詩에 대하여 반복하여 읊조려 보았는데 단지 그 충후한 뜻만 보일 뿐 그것에 외설스럽고 무람없는 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孔子家語』의 이른바 ‘나는 「木瓜」에서 선물의 예가 행해짐을 본다’라는 것이 또한 근거없이 이 말을 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선생께서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로써 말한다면 「小序」의 설 역시 부회의 잘못이 있어 사실 의거할 바가 없다… 『孔子家語』에 실린 孔子의 설은 王肅이 찬집한 것으로 본래 다 믿기가 어렵고 그 말 또한 별 의미가 없으며 또 「小序」의 작성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다음인지 알 수 없으니 또 의거하여 설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생각하여 보았는데 「靜女」詩는 그것이 남녀가 서로 증답한 것이라는 것이 시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시는 전혀 남녀간의 말이 보이지 않으니 만약 단지 시 본문에 의거하여 일상적으로 서로 선사하는 뜻이라고 여겨도 또한 통하는 것 같다. 먼저 배운 것이 비록 보잘 것없다 하더라도 후에 갠 것은 항상 지나칠 정도로 후하니 이것 역시 충후한 정이며 또 『孔子家語』의 설과도 어긋나지 않는다.⁴⁹⁾

輔廣은 『孔子家語』가 王肅이 조작한 것이므로 거기에 기록된 『詩經』

48) 『詩集傳』, 卷3, p.27 : 疑亦男女相贈答之詞, 如「靜女」之類.

49) 『童子問』, 卷2, p.11 : 有學者請於先生曰: “某於「木瓜」詩反覆講詠, 但見其忠厚之意, 而不見其有褻慢之情… 不然, 則「家語」所謂「吾於「木瓜」見苞苴之禮行, 亦豈擊空而爲此言乎?” 先生以爲不然, 曰: “… 愚謂以此言之, 則「小序」之說, 則亦傳會之失, 實無所據… 至於「家語」所載夫子之說, 乃王肅所纂集, 固難盡信, 而其言亦又無甚意味, 且於「小序」之作, 未知孰爲先後也, 又烏可據以爲說哉? 嘗試思之, 「靜女」之詩, 其爲男女相贈答, 於詩文可見. 至此詩則全不見男女之辭, 若只據詩文以爲尋常相問遺之意, 似亦通. 先施之者雖薄, 而後報之者常過厚, 是亦忠厚之情也, 且與「家語」之說, 亦不相戾.”

에 관한 孔子의 말 역시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木瓜」篇의 경우는 시편 본문에 남녀간의 애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승의 설을 따르기 보다는 『孔子家語』의 설을 따라 친구간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다지는 시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여기고 있다.

淫詩 30篇이 실제로는 다 남녀간의 애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시인이 남녀간의 일을 빌어서 군신간의 일이나 친구간의 일 등을 기탁한 시편도 다소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淸의 崔述은 朱熹의 淫詩論에 일단은 동조하되 賦詩者가 斷章取義할 수 있다면 作詩者 역시 '男女相悅之詞'에 그 情志를 기탁할 수 있으므로 朱熹가 판정한 淫詩中에 사실은 淫詩가 아닌 것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朱熹의 주장대로 淫詩가 다 作詩者 자신의 감정을 읊은 것이라면 「鄭風」의 淫詩가 대부분 여자가 남자에게 말한 것이 되며, 鄭나라에서 시를 잘 짓는 사람은 다 음탕한 여자일 수밖에 없게 되는 아주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朱子가 淫奔詩라고 지목한 것은 지나치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시가 또한 반드시 음탕한 자가 스스로 지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그 중에는 실제로 남녀가 서로 좋아해 시로써 주고 보낸 것이 있으며 또한 楚나라 사람의 「高堂賦」·「神女賦」, 唐나라 사람의 「無題」·「香奩」과 같이 일부러 男女相悅之詞로 한 것이 있다. 또 혹 후세의 「冉冉孤生竹」·「上山采蘼蕪」·「君嫌鄰女醜」의 류와 같이 君臣·朋友 사이에 느끼고 촉동되는 바가 있어 남녀간의 일에 기탁한 것도 또한 있다. 子太叔이 「褰裳」을 賦했고 子柳가 「擗兮」를 賦했으며 子蠶가 「野有蔓草」를 賦했는데, 그것을 賦하는 자가 斷章取義의 할 수 있는 이상 그것을 짓는 자만이 일에 가탁하여 情志를 것들일 수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여자가 남자에게 준 것은 아주 많은데 남자가 여자에게 준 것은 매우 적은가? 어찌 鄭나라의 시에 능한 자는 모두 음탕한 여자인가?50)

50) 崔述, 『讀風偶識』(臺北: 河洛圖書出版社, 『崔東壁遺書』本, 1975), 卷3, pp.19~20: 朱子目爲淫奔之詩, 未可謂之過也. 然其詩亦未必皆淫者所自作. 蓋其中實有男女相悅而以詩贈遺者, 亦有

예로부터 남녀의 애정이나 기타 다른 사물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탁하여 토로한 시편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屈原은 「離騷」에서 미인과 향초를 빌어서 君臣에 비유하였고, 曹植은 「七哀詩」에서 思婦·遊子에 기탁하여 고통스러운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였으며, 李商隱은 「無題」詩에서 남녀간의 私情으로써 당시의 정치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걱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詩經』에도 역시 남녀간의 애정에 의탁하여 君臣·朋友間的 일이나 개인의 처지를 노래한 시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方玉潤은 “마침내 한때의 忠臣賢士와 義夫烈女들로 하여금 모두 千數百年 이전에 억울함을 뒤집어썼으되 밝히어 씻어줄 사람이 없다면 이 어찌 한때 한 사람의 유감이겠는가?”⁵¹⁾라고 朱熹의 淫詩 自作說을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朱熹가 淫詩의 판정에 있어서 형평을 잃었다는 점이다. 朱熹는 正「風」인 「周南」과 「召南」의 시는 文王의 德化를 입어 性情의 바름을 얻은 자들의 작이기 때문에 예의의 규범에 다 합치되어 음란하거나 사악한 시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周南」의 「漢廣」篇·「汝墳」篇과 「召南」의 「行露」篇·「標有梅」篇·「野有死麕」篇 등은 사실 남녀간의 애정을 읊은 면에 있어서 이른바 變「風」의 淫詩보다 더 음란하고 노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朱熹는 이 시편들을 모두 雅正한 시라고 여김으로써 淫詩의 판정에 있어서 형평을 잃었다.

「行露」篇 第1章 “촉촉한 이슬 길에 어찌 새벽 일찍 밤늦게 다니고 싶지 않으리오? 길에 이슬이 많기 때문이랴오(厭浥行露, 豈不夙夜? 謂行多露)”에 대하여 朱熹는 『詩集傳』에서 이것이 정숙한 여자가 強暴한 자를

故爲男女相悅之詞, 如楚人之「高堂」·「神女」, 唐人之「無題」·「香奩」者. 又或君臣朋友之間有所感觸, 而託之於男女之際, 如後世之「冉冉孤生竹」·「上山采蘼蕪」·「君嫌鄰女醜」之類, 蓋亦有之. 子太叔賦「褰裳」, 子柳賦「薄兮」, 子壽賦「野有蔓草」, 賦之者既可以斷章取義, 作之者獨不可以假事而寓情乎? 不然, 何以女贈男者甚多, 男贈女者殊少? 豈鄰之能詩者皆淫女乎?

51) 方玉潤, 『詩經原始』(臺北: 藝文印書館, 1981), 卷5, p.40: 遂使一時忠臣賢士, 義夫烈女, 悉含冤負屈於千百載上, 而無人昭雪之者, 此豈一時一人之憾?

핑계를 대어 거절하는 말이라고 해설하였다.

賦다… 南國의 사람들이 召伯의 가르침을 따르고 文王의 덕화를 입어 전날의 음란한 풍속을 고침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예로써 스스로 지켜서 強暴한 자에게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여자가 있어 스스로 그 뜻을 진술하여 이 시를 지어 그 사람을 거절한 것이다… 대체로 여자가 일찍이나 저물게 혼자 다니면 혹시 強暴한 자가 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길에 이슬이 많아서 젖을까 두렵다는 구실을 대었다.⁵²⁾

이와 같은 朱熹의 해설에 대하여 陳啓源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行露」는 예를 범한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본래 興體인데 『詩集傳』은 賦로 판정하였으니 이것은 이슬에 젖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감히 淫奔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자가 淫奔을 원하지 않으면 누가 억지로 하게 할 수 있으리오만 반드시 이슬로써 핑계를 대야 하는가? 또 “스스로 그 뜻을 진술하여 그 사람을 거절하였다”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그와 私通하다가 이어서는 후회를 하여 거절한 것과 흡사하니 이는 貞女라고 일컬을 수 있는가?⁵³⁾

위에서 말한 陳啓源의 견해를 확대 해석하면, 朱熹가 이 시를 賦로 판정하였으므로 그 의미가 음탕한 여자가 이슬에 젖을까봐 두려워 감히 淫奔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大夫가 두려워 감히 淫奔하지 못하겠다는 「王風·大車」篇과 별 차이가 없다. 또 여자가 시로써 자기의 뜻을 진술하여 거절하였다고 한 것은 남자와 私通하다가 나중에 절교를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 정숙한 여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52) 『詩集傳』, 卷1. p.20 : 賦也… 南國之人遵召伯之教, 服文王之化, 有以革其前日淫亂之俗. 故女子有能以禮自守, 而不爲強暴所汚者, 自述其志, 作此詩以絕其人… 蓋以女子早夜獨行, 或有強暴侵陵之患, 故託以行多露而畏其沾濡也.

53) 『毛詩稽古編』, 卷61, p.8 : 「行露」以喻犯禮, 本興體, 『集傳』判爲賦, 是言畏露之濡濕, 故不敢淫奔也. 女子不願淫奔, 誰能濡之, 須以露爲詞耶? 又曰: “自述其志, 以作此詩而絕其人”, 一似始與之私, 繼則悔而絕之者, 此可謂貞女乎?

시는 마땅히 淫詩가 되어야 할 터인즉, 朱熹의 해설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淸의 俞樾은 朱熹가 「鄭風·將仲子」篇에 대해서 「詩序」說을 따르지 않고 淫詩로 판정한 것⁵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만약 이 시가 운중계 二「南」正「風」에 있었다면 朱熹가 틀림없이 「野有死麋」篇에서 평한 것처럼 “凜然하여 범접할 수 없는 뜻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설하였을 것이라고 淫詩판정의 형평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朱文公이 「將仲子」에 대해서 「序」說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또 어찌 淫奔詩라고 여김에 이르렀는가? 만약 이 시가 다행스럽게도 二「南」에 열거되었었다면 朱子는 반드시 “凜然하여 범접할 수 없는 뜻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다.⁵⁵⁾

俞樾의 말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朱熹가 「將仲子」篇을 淫詩로 판정한 예에 비추어 보아 그보다 더 심한 「野有死麋」篇은 당연히 淫詩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女子가 漢水와 長江가에 나와 노닐어 남자들로 하여금 사모의 정을 불러일으키게 한 「漢廣」篇·「鄭風·風雨」篇과 동일한 詩句를 갖고 있는 「汝墳」篇 및 시집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누구든 자기를 데려가라고 한 「標有梅」篇 역시 朱熹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淫詩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형평을 잃은 朱熹의 淫詩판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崔述의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毛·鄭 이래로 『詩』를 말하는 자들은 二「南」을 文王 때의 시라고 여겼다.

54) 『詩集傳』, 卷4, p.13 : 莆田鄭氏曰: “此「將仲子」篇, 淫奔者之辭.”

『詩序辨說』, p.17 : 莆田鄭氏謂: “此「將仲子」篇實淫奔之詩, 無與於莊公·叔段之事.”

55) 俞樾, 『賓萌集』(淸 同治 刊 『春在堂全書』本) 卷2, 『經義雜說』, p.32 : 朱文公於「將仲子」即不用「序」說, 亦何至以爲淫奔之詩哉? 使此詩幸而列於二「南」, 朱子必曰: “其凜然不可犯之意可見”矣.

그래서 「漢廣」·「汝墳」·「標有梅」·「小星」·「江有汜」·「野有死麕」 제편을 모두 文王의 덕화가 입혀진 것이라고 혼계하였다. … ‘여자’이면서 ‘노닐고’, ‘남자’이면서 ‘유혹하며’, 짝을 구하되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니 교훈으로 삼을 수 없음이 매우 분명하다.⁵⁶⁾

「漢廣」·「野有死麕」·「標有梅」 등의 시편이 이른바 變「風」淫詩와 다를 바없이 성정의 바름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朱熹가 「詩序」說의 영향을 떨쳐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淫詩 판정에 있어서 형평을 잃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역대 詩經學者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未了公案’으로 남아 있는 朱熹 淫詩論의 득실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鄭聲淫’에 대한 朱熹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尙書』·『墨子』·『春秋左傳』·『禮記』·『呂氏春秋』 등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옛날부터 詩와 樂이 내용상 동질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鄭聲淫’은 ‘鄭詩淫’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禮記·樂記』에서 子夏가 鄭·衛·宋·齊의音が ‘色於淫’하다고 하였으며 또 ‘鄭音’ 즉 鄭聲이 사람의 뜻을 음탕하게 한다고 평한 말로부터 ‘淫’이 음란함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楊慎 등은 ‘淫’을 ‘음탕하다’라고 본 朱熹의 견해에 반대하여 ‘지나치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사실상 ‘지나치다’라는 것 역시 일정한 한도를 넘

56) 崔述, 『豐鎬考信錄』(臺北:河洛圖書出版社, 『崔東壁遺書』本, 1975) 卷2, p.2: 自毛·鄭以來, 說「詩」者以二「南」爲文王時詩。於是「漢廣」·「汝墳」·「標梅」·「小星」·「江有汜」·「野有死麕」諸篇, 皆訓以爲文王德化所被。… “女”而“游”, “士”而“誘”, 求偶而不能以少待, 其不可以爲訓明甚。

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朱熹의 해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의 곡조 또는 시가의 내용이 일정한 한도 즉 규범을 넘으면 자연히 淫泆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남녀간의 음란한 애정행각을 읊은 시편들이 다 民間閭巷 소인배들의 자작이라는 朱熹의 견해는 시인이 남의 음란한 애정행각을 諷刺한 것이라고 해설한 傳統 詩經論의 오류를 시정하였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楚辭를 비롯한 후대의 중국 시가에 남녀간의 애정에 기탁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토로한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며, 시인이 자작의 형식을 빌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읊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詩經』에도 또한 이러한 시편들이 적지 않게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내용을 품고 있는 시를 모두 敗德한 소인배의 자작이라고 간주한 朱熹의 주장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朱熹는 일부 시편에 있어서 시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거나 진부한 도덕 관념에 얽매이거나 또는 선입견에 구애되어 해설의 일관성을 잃음으로 인하여 淫詩로 잘못 판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즉 「衛風」의 「氓」과 「有狐」, 「鄭風」의 「風雨」와 「揚之水」 4편은 남녀간의 사랑 내지 음탕한 일을 읊은 시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朱熹는 이 시편들을 淫詩로 잘못 판정하였다.

넷째, 淫詩 판정에 있어서 朱熹는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周南」의 「漢廣」·「汝墳」, 「召南」의 「行露」·「標有梅」·「野有死麕」 등 5편은 내용상 變「風」의 淫詩보다 더 음란하고 노골적인 남녀간의 일을 읊고 있다. 그러나 朱熹는 「詩序」의 二「南」正「風」說에 구애되어 이 시편들을 淫詩로 판정하지 않고 오히려 『毛傳』과 『鄭箋』의 설을 따름으로써 淫詩 판정에 있어서 형평을 잃는 오류를 범하였다.

〈 參考文獻 〉

朱熹, 『詩序辨說』, 臺北:藝文印書館, 『學津討源』本, 1965

- ____. 『詩集傳』。臺北：學生書局，1970
- ____. 『詩集傳』。臺北：商務印書館，1981
- ____. 『朱文公文集』。臺北：商務印書館，1980
- ____. 『朱子大全』。서울：景文社，1977
- ____. 『論語集註』。서울：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經書』本，1965
- 鄭玄注，賈公彥疏，『儀禮注疏』。臺北：藝文印書館，『十三經注疏』本，1972
- 鄭玄注，賈公彥疏，『周禮注疏』。臺北：藝文印書館，『十三經注疏』本，1972
- 毛公傳，鄭玄箋，孔穎達疏，『毛詩正義』。臺北：藝文印書館，『十三經注疏』本，1972
- 孔安國傳，孔穎達疏，『尚書正義』。臺北：藝文印書館，『十三經注疏』本，1972
- 鄭玄注，孔穎達疏，『禮記正義』。臺北：藝文印書館，『十三經注疏』本，1972
- 杜預注，孔穎達疏，『春秋左傳正義』。臺北：藝文印書館，『十三經注疏』本，1972
- 抉經心室主人編，『清儒詩經彙解』。臺北：鼎文書局，1972
- 高誘注，畢沅校，『呂氏春秋新校正』。臺北：世界書局，1978
- 歐陽修，『詩本義』。臺北：漢京文化事業公司，『通志堂經解』本，1979
- 董仲舒著，蘇與義證，『春秋繁露義證』。臺北：河洛圖書出版社，1975
- 呂祖謙，『呂氏家塾讀詩記』。臺北：商務印書館，1981
- 黎靖德類編，『朱子語類』。臺北：正中書局，1962
- 劉瑾，『詩傳通釋』。臺北：商務印書館，『四庫全書珍本』3集本，1971
- 劉安世，『元城語錄』。臺北：藝文印書館，『惜陰軒叢書』本，1965
- 劉玉汝，『詩續緒』。臺北：商務印書館，『四庫全書珍本』初集本，1969
- 毛奇齡，『白鷺洲主客說詩』。臺北：復興書局，『皇清經解續編』本，1972
- 方玉潤，『詩經原始』。臺北：廣文出版社，1981
- 方回，『桐江集』。臺北：商務印書館，『叢書集成』3編本
- 輔廣，『童子問』。臺北：商務印書館，『四庫全書珍本』4集本，1971
- 孫詒讓，『墨子閒詁』。臺北：世界書局，1978
- 荀卿著，王先謙集解，『荀子集解』。臺北：世界書局，1978
- 楊慎，『丹鉛摘錄』。臺北：商務印書館，『四庫全書珍本』4集本，1971
- 嚴粲，『詩緝』。臺北：廣文書局，1970
- 葉紹翁，『四朝聞見錄』。臺北：商務印書館，『叢書集成』本
- 王柏，『詩疑』。臺北：漢京文化事業公司，『通志堂經解』本，1979
- 王先謙，『詩三家義集疏』。北京：中華書局，1987
- 王質，『詩總聞』。臺北：新文豐出版社，1984
- 王充，『論衡』。臺北：中華書局，1966
- 王鴻緒，『欽定詩經傳說彙纂』。臺北：維新書局，1978

- 姚際恒,『詩經通論』,北投:育民出版社,1979
- 俞樾,『賓萌集』,清同治刊『春在堂全書』本
- 程川編,『朱子五經語類』,臺灣:商務印書館,『四庫全書珍本』3集本,1971
- 鄭樵,『六經輿論』,臺北:漢京文化事業公司,『通志堂經解』本,1979
- ,『夾深遺稿』,臺北:藝文印書館,『藝海珠塵』本,1966
- 鄭樵著,顧頡剛輯,『詩辨妄』,北京:景山社,1930
- 左丘明撰,韋昭解,『國語』,臺北:中華書局,1966
- 周孚,『非詩辨妄』,臺北:藝文印書館,『涉聞梓舊叢書』本,1968
- 朱鑑,『詩傳遺說』,臺北:漢京文化事業公司,『通志堂經解』本,1979
- 竹添光鴻,『毛詩會箋』,臺北:大通書局,1975
- 陳啓源,『毛詩稽古編』,臺北:復興書局,『皇清經解』本,1972
- 崔述,『讀風偶識』,臺北:河洛圖書出版社,『崔東壁遺書』本,1975
- ,『豐鎬考信錄』,臺北:河洛圖書出版社,『崔東壁遺書』本,1975
- 郝敬,『毛詩原解』,臺北:藝文印書館,『湖北叢書』本,1967
- 何楷,『詩經世本古義』,臺北:商務印書館,『四庫全書珍本』4集本,1971
- 許謙,『詩集傳名物鈔』,臺北:漢京文化事業公司,『通志堂經解』本,1979
- 胡廣等,『詩傳大全』,臺北:商務印書館,『四庫全書珍本』5集本,1971
- 黃震,『黃氏日抄』,京都:中文出版社,1978
- 羅倬漢,『詩樂論』,臺北:正中書局,1970
- 大濱浩,『朱子の哲學』,東京:東京大學出版會,198
- 李家樹,『詩經的歷史公案』,臺北:大安出版社,1990
- 林慶彰編,『詩經研究論集』(一),臺北:學生書局,198
- ,『詩經研究論集』(二),臺北:學生書局,1987
- 山根三芳,『朱子倫理思想研究』,東京:東海大學出版部,1983
- 葉國良,『宋人疑經改經考』,臺北:國立臺灣大學出版委員會,1980
- 汪惠敏,『宋代經學之研究』,臺北:師大書苑有限公司,1989
- 袁寶泉·陳智賢,『詩經探微』,廣州:花城出版社,1987
- 錢穆,『中國學術思想史論叢』(四),臺北:東大圖書公司,1978
- ,『朱子新學案』,臺北:著者出版,1980
- 錢鍾書,『管錐編』第一冊,北京:中華書局,1979
- 程元敏,『王柏之詩經學』,臺北:嘉新水泥公司文化基金會,1968
- 黃振民,『詩經研究』,臺北:正中書局,1981
- 黃忠慎,『南宋三家詩經學』,臺北:商務印書館,1988
- 賴炎元,『朱熹的詩經學』,『中國學術年刊』2期,1978. 6

- _____, 「呂祖謙的詩經學」, 『中國學術年刊』, 6期, 1984. 6
- 劉伯淵, 「儒家詩教思想的形成」,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8年 4期
- 李勤印, 「古代情詩的詩教·理學的反叛」,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8年 12期
- 毛毓松, 「關於孔子詩學觀的評價」,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2年 4期
- 方延明, 「鄭聲非詩經鄭風辨」, 『文獻』, 1985年 5期
- 傅斯年, 「宋朱熹的詩經集傳和詩序辨」, 新潮 1期 4卷, 1919. 4
- 謝謙, 「論朱熹詩說與毛鄭之學的異同及歷史意義」, 『四川師院學報』, 1985年 3期
- _____, 「關於朱熹詩說的兩條考辨」, 『四川師大學報』, 1986年 5期
- _____, 「朱熹“淫詩”之說平議」,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7年 6期
- _____, 「試論朱熹的“美刺”之辨」, 『西南師範大學學報』, 1987年 第1期
- _____, 「論朱熹的“思無邪”說—朱熹美學思想批判之一」, 『四川師範大學學報』, 1988年 1期
- 石文英, 「論漢儒美刺言詩」,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5年 15期
- _____, 「宋代學風變古中的詩經研究」,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6年 1期
- 薛耀天, 「思無邪新解」, 『天津師大學報』, 1984年 3期
- 申美子, 「詩經의 淫詩에 對하여」, 『閒堂車柱環博士頌壽論文集』, 1981. 8
- 辛筠, 「鄭聲淫辨」, 『中州學刊』, 1984. 5
- 梁宗華, 「朱熹詩集傳對詩經研究的貢獻」,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0年 12期
- 楊凌羽, 「簡論鄭風」,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2年 13期
- 王春謀, 「朱熹詩集傳淫詩說之研究」, 臺北·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79
- 于承武, 「釋“思無邪”」, 『信陽師範學院學報』(哲社), 1986年 4期
- 原新梅, 「朱熹詩集傳對毛詩序的批判和繼承」,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90年 5期
- 陸永品, 「略談對詩經中愛情、婚姻詩評價的演變」,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1年 13期
- 尹建章, 「試談詩經的諷刺藝術」,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7年 2期
- 李家樹, 「宋朱熹·呂祖謙的論爭—孔子“思無邪”一語在詩學上的迴響」, 『東方文化』, 24

卷 2期. 1986

- 李先耕,「談方玉潤的詩經研究」,『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7年 4期
- 李再薰,「朱子詩經學要義通證」,臺北:國立臺灣大學 中文研究所 碩士學位 論文, 1982.
- _____,「鄭樵의 詩經學」,『中國學論叢』第2輯, 서울: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會, 1985
- _____,「朱子詩經學 研究」, 서울:서울대학교 博士學位 論文, 1994. 2
- 林惠勝,「朱呂詩說比較研究」,臺北:臺灣大學 中文研究所 碩士論文, 1983
- 張啓成,「試論鄭風的情歌」,『文學評論』1982年 6期,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12
- 張宏生,「朱熹詩集傳的特色及貢獻」,『連城師專學報』, 1987年 2期
- 蔣勳材,「國風淫詩公案述評」,『東方雜誌復刊』10卷 11·12期, 1977. 5. 6
- 錢穆,「讀詩經」,『新亞學報』5卷 1期, 香港:1960. 8
- 錢鍾書,「詩可以怨」,『文學評論』1981年 1期,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1. 2
- 程元敏,「兩宋之反詩序運動及其影響」,『中山學術文化集刊』第2集, 1968. 11
- _____,「朱子所定國風中言情詩研述」,『孔孟學報』第26期, 1973. 9
- _____,「國風私情詩宋人說探源」,『中國古典文學論叢 卅一: 詩歌之部』,臺北:中外文學月刊社, 1976
- 趙敏利,「論詩經·鄭風的產生及其評價問題」,『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7年 8期
- 趙沛霖,「關於“鄭聲淫”古今各家之說辨正」,『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社, 1989年 9期
- 曾伯藩,「論朱熹對詩經研究的功過」,『江西師範學院南昌分院學報』1983年 2期
- 陳紹棠,「詩序和淫詩」,『中國學人』1期, 1970. 3
- 陳定玉,「賦比興與《詩經》的比興藝術」,『福建師大學報』, 1978年 第3期
- 蔡根祥,「朱熹詩集傳淫詩說平議」,『孔孟月刊』25卷 1期, 1986. 9
- 馮寶志,「宋代詩經學概論」,『古籍整理與研究』1號,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6. 10
- 許英龍,「朱子詩集傳研究」,臺中:東海大學 中文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85
- 黃忠慎,「宋代之詩經學」,臺北: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84